

#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후보 공모

시, 15일~6월 30일까지 슬로라이프 통한 행복 실현 등 활동 펼쳐온 기관·단체·개인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인 전주시가 슬로라이프를 통해 행복을 실현하고 전통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세계 슬로어워드 수상자를 찾는다. 시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5회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는 슬로니스 철학과 슬로시티 정책사례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모범사례로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 공모주제는 ▲수소, 탄소, 재생에너지의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유기농업,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 슬로시티 푸드 ▲생태관광 및 생태교통(걷는 길, 자전거길) 등이 다.

공모자격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산업 지키기 위한 활동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 주도 추진사업 및 캠페인 ▲삶의 질 개선과 슬로라이프를 통한 행복 실현 활동 ▲자연 환경보호 및 자연경관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펼쳐온 국내·외 기관·단체·개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단체·개인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A4 용지 20매 내외로 작성된 세부설명자료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6층) 또는 이메일(sws020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국의 신청지라 면 서울 소재 사단법인 한국슬로시티 본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0, 메트로칸 2015호)로 우편 또는 이메일(ditaslowkorea@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과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국내외 국의 각 2명씩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1월 4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리는 제5회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시상식에서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되며, 사례발표도 진행하게 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는 슬로시티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슬로시티의 가치를 알리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모범사례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개인·기관·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수상자 중 국외 부문에는 ▲마우로 밀리오리니 이탈리아 아술로 시장 ▲나이젤 벨 호주 카툰바 건축가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뽀네페드라 시장 ▲주세페 저머니 이탈리아 호르비에토 시장 ▲피에르 보운드란 프랑스 미랑드 시장 ▲로렌드 라제리 이탈리아 살로르노 시장 ▲에흐르 르페브르 프랑스 사마탄 시장 등 7명이 선정됐다. 또 국내 부문에는 ▲바원순 서울시장 나영석 PD ▲장석주 시인 ▲함정희 함씨네토종콩 식품 대표 ▲노박래 서천군수 ▲심영배 전주시립미술관 대표 ▲정지안 미친서각마을 대표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 ▲안경숙 시잇골 어울행복마을 대표 등 9명이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 건강한 사회복지시설 직장문화 조성 인권 교육

전주시, 시설장 823명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

전주시가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장 823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 갑질과 관련한 고발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성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3일 열린 첫 교육에서는 복지관과 노숙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 관련 다양한 사례와 성희롱·성폭



시설장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권의식에 대해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건강한 직장문화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설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종사자는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권의식에 대해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건강한 직장문화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만경강 하천변에 나비·파크골프장 조성

전주시, 12월까지 13억원 투입

만경강 하천변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나비·파크골프장이 생긴다.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13억원을 들여 화전동 만경강 하천부지 내에 나비·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나비골프장은 1만7,000㎡(5,142평) 규모의 9홀로 신규 구축된다. 기존에 9홀이 조성돼 있었던 파크골프장에는 이번엔 2만㎡(6,050평) 규모의 9홀이 추가로 구축돼 18홀로 증설된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이번 증설로 오는 2023년 열리는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세부 위치는 만경강 철교부터 삼례교 밑 둔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 등을 거쳐 8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비·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나비·파크골프협회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왔다.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13억원을 들여 화전동 만경강 하천부지 내에 나비·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위치도)

이와 관련 나비·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알려졌다.

나비골프는 기존 골프와 유사하지만 공과 클럽을 특별히 제작해 비거리를 줄여 좁은 공간에서도 일반 골프와 동일한 스윙을 즐길 수 있다.

또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인 파크골프는 우드(목재) 클럽 하나와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

라스틱 공을 사용하는 미니 골프 종목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나비·파크골프장 조성이 전주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골프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취약계층 우울증·자살 사전 예방·안전망 구축 '맞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생명존중 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전주시가 취약계층의 우울증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을 가동한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와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장호룡), 7개 영구·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3일 주택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구·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우울증 및 자살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자들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7개 아파트를 생명사랑 안심아파트로 지정하는 한편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이 자살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센터는 또 자살 고위험군에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박태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취약계층의 자살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와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장호룡), 7개 영구·국민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3일 주택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

와 함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효과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정신건강의 청신호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니어클럽, '전주60+교육센터' 공모 3년 연속 선정

전주시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호춘)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전주60+교육센터'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만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취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주60+교육센터 사업은 만 60세 이상 시민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연계해 주는 게 특징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역할 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보육직종 ▲미화직종

▲제조업 ▲조경직종 ▲가정관리사 ▲농촌일손도우미 ▲기타 맞춤형 전문인력 등 7개 과제가 개설될 예정이다. 150명의 취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니어클럽은 지난 2년간 농촌일손도우미, 바리스타, 음식제조업, 산모신생아 과장 등을 279명에게 교육해 모두 취업까지 연계시켰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